

광주문진위, 오견탁 위원장 연임 강행 지역 문화계 반발 확산

성명서 발표... "위상정립 대대적 수술 시급"

제 3기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하 광주 문진위) 위원과 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지난달 31일 선임 위원과 위원장 선임을 강행했다.

지역예술계에서는 지난달 28일로 임기가 끝난 2기 광주문진위원과 위원장의 후임 인사를 제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장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며 반발해 왔었다. 여기에 현 2기 위원장의 연임 내정설까지 불거지면서 반발은 더욱 커졌다. 예술계에서는 신임 시장이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3기 위원과 위원장 선임을 차기로 미루라고 요구해왔다.

광주시는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문진위 제3기 이사회를 열고 오견탁 현 위원장을 3기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난달 27일 시로부터 위촉 받은 신임 위원 15명은 정관에 따라

호선을 통해 오견탁씨를 3기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부위원장은 황하택 ((사)한국지역문화인협회 이사장) 씨가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이사는 "새로운 시장이 큰 틀에서 문화 정책을 그럴 수 있도록 신임 위원장 선출은 차기 시장 취임 후로 남기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사는 "정관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위원장 선임을 늦추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문화예술계가 정치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신임 시장에게 맡기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취임 후 새 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는 2개월 가까운 공백 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예술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원장 선임을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신임 위원장 선정과

관련, 지역 문화계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김상윤)는 지난달 30일 "시장은 광주문진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문진위는 기금 배부 장구에 머물고 기금출연과 전문인력 충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타 지역 문화재단에 비해 가장 왜소한 조직체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와 같은 결과는 광주문진위에도 귀책사유가 있지만 광주문진위를 도구적 관점에서 출발시키고 운영해온 광주시 문화정책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나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미술인조합 광주지부(지부장 최만길)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시장이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는 것은 또 다른 억측과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새로운 시장에게 위원회 구성 등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정관에 따라 신임 위원과 위원장 선출을 진행했다"며 "현 위원들 역시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로, 각계에서 추천을 받은 이상 열심히 활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진위 사태와 관련, 지역 예술계에서는 문진위의 위상 정립과 관련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인적 구성 문제 뿐 아니라 현재 기금 배급 장구에 머물고 있는 문진위의 역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양화가 신창운씨가 지난달 31일 입주한 대동아트 스튜디오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미술계 활력소 되겠다"

대동아트 스튜디오 입주작가 7명 오픈 준비 한창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31번지 대동아트 스튜디오. 금남로에서 한 발짝 비껴난 골목 한켠에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등지를 틀었다.

지난 3월 문을 연 대동아트 스튜디오는 지역 문화계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팔각정, 양산동 창작 스튜디오처럼 관리 지원하는 작업실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작가들을 지원하는 창작 스튜디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주시 외곽에 위치한 이들 스튜디오와 달리 공동 예술의 거리와 가까운 시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등 접근성이 용이한 이점도 있다.

오는 6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개관 준비로 분주한 대동아트 스튜디오를 찾았다.

이번에 대동아트 스튜디오 1기 생으로 입주한 작가들 총 7명. 강일호(40·한국화), 김건일(25·서양화), 신창운(40·서양화)씨가 2층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박설(25·한국화), 주대희(28·한국화), 최미연(25·한국화), 박상화(40·미디어 아트)씨가 3층에 작업실을 꾸렸다. 2·3층 330㎡(100

여평) 공간에는 공동 작업실, 개인 작업실, 사무실, 휴게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은 대학을 막 졸업한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젊은 작가들이다. 대동문화재단은 민간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획할 당시 입주 대상을 40세 이하의 젊은 작가들로 한정했었다. 개인 작업실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는 게 1차적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입주 기간 추세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2년 입주라는 파격적 계약으로 안정성을 보장했다.

지난해 광주문화예술상 특별상을 수상한 한국화가 강일호씨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특별한며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주는 일은 환영받을 일"이라며 "이런 시스템으로 2년 정도 준비하고 이어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화가 김건일씨와 한국화가 박설·최미연씨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생애 첫 작업실을 갖게

됐다.

이들의 스튜디오 입주는 큰 힘이 됐다. 이곳을 터전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스튜디오 작업과 병행해, 최근 광주시 동구 호남동에 작업실을 마련한 손봉태 작가 밑에서 작품 제작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작품관도 다듬어가고 있다.

2년간 인도생활을 접고 귀국해 서울·부산 등 순회전 가진 신창운씨는 새로 자리잡은 이곳에서 인간 육망의 근원을 모색 하면서 형식적인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그는 "연령도 장르도 각기 다른 작가들이 함께 모여 작업하는 것이 즐겁다"면서 "입주 작가들이 서로 도우며 작업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동문화재단측은 "아직 시설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차근차근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오픈 스튜디오와 입주작가 기획전 등 공동작업과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해 광주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형석씨 광주 첫 단소독주회

3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학교 음악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악기는 뭘까. 서양악기 가운데 피리(리코더), 국악기 중에서는 아마도 단소가 가장 친숙한 악기일 듯하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단소 독주회가 열린다. 대금 연주자인 김형석(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씨는 오는 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단소 독주회를 갖는다.

김씨는 단소 연주회를 계획한 것은 5년 전이다. 스승인 이용구씨가 대금 명인 이생강씨의 뒤를 이어 단소 산조를 복원하고, 다양한 음계를 가진 개량 단소를 제작, 발표회를 갖는 것을 보고 꿈을 키웠다.

김 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단소의

대표 독주곡인 '청송곡'을 비롯해 단소 산조 '전승선 가락'을 들려준다. 서양 악기와 결합도 시도했다. 첼발로의 정종민씨와 영국 민요 'Green sleeves to a ground'를 들려주며 '랑' 현악사중주단(고진경·김재은·윤소희·신정문)과 '개량단소와 현을 위한 도드리'를 선사한다. 또 형인 김상훈(서울시국악관현악단 아쟁 수석)씨가 찬조 출연한다.

부지런한 김 씨는 벌써 내년 연주회의 테마도 잡아두었다. 서양 현대음악곡으로 대금 연주회를 열기로 하고 아버지의 작곡가 김승일(조선대 명예교수)씨의 곡과 김현욱(전남대 강사)씨의 창작곡 '노트북' 등을 연습하고 있다. 김씨는 "독주회를 할 정도로 레퍼토리가 다양하다는 질문



을 받을 정도로 일반인, 국악인 모두에게 단소 독주회는 생소하다"며 "단소의 다양한 매력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10-6876-3337.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을 시낭송회 3일 지하철 상무역

광주시낭송가회(회장 이미영)가 오는 3일 오후 6시 30분 광주지하철 상무역 상설무대에서 '제11회 빛고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를 갖는다.

'장성문협'과 함께하는 이번 시 낭송회는 점차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시를 사랑하고, 낭송하며 삶의 여유를 갖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양봉모씨 사회로 진행되며 남수산나·김여진 플루트 연주자와 함께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밤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슬아·이기환·손덕순·이숙자·김희순·정영숙·김혜경·장진규·김정순씨 등이 시를 낭송한다. 문의 010-3666-308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6월의 읽을 만한 책 '온양이' 등 10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2010년도 '6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온양이'(샘터 펴냄)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 발표했다.

'6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는 전국

에 소개한 한옥, 특히 꽃담에 초점을 맞춰 알기 쉽게 정리한 '한국의 옛집과 꽃담'(생각의나무 펴냄)을 비롯해 중국의 장구한 역사를 모든 문화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중국, 외교관의 눈으로 보다'

(늘봄 펴냄), 부모와 자식간의 애절한 정을 두 딸을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 쓴 에세이 '눈으로 하는 작별'(사피엔스21 펴냄) 등이 선정됐다.

도서목록과 자세한 내용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ec.or.kr)의 웹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SINCE 1988

대한민국대금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형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할수있는 100% 안전방수!!

방수공부하는 거지방수 하지 방수!!!

고성, 지아빌, 희백, 루자빌, 옥실 등 방수용 호퍼콘

최신 공 다량과 방수전문가 자력방수용입니다

특히 공 취하는 한국어나 외형은 꼭 방수 있습니다

가정용 전선이고 가정용은 못!

무동산 플랜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신앙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